

2025년 제3차 성애원 시설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 2025. 9. 24(수) 17:00

장 소 : 성애원 회의실

참석자 : 위원장 김 정

위 원 박 희, 최 희, 조 미, 이 민

- 안 건 1. 2025년 3분기 사업보고 및 2025년 4분기 사업계획 보고
2. 기타 (2025년 시설평가 및 전기온수저장탱크 및 냉장고 교체)

<회의내용>

위 원 장 :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어 생활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5년 3분기 사업실적 보고 및 2025년 4분기 사업계획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희 :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위원일동 : 재청합니다

최 희 : 아이들 근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 미 : 회의자료의 아동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현재 총27명입니다.

초등3명, 중등3명, 고등4명, 대학생 9명, 취업1명, 취준4명

재입학준비 1명, 정신병원 입원 2명입니다.

5월 23일에 아동학대로 입소한 5학년 석 훈 아동은 금빛초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낯설 텐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처음보다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박 희 : 슬슬 사춘기에 접어드나 봅니다.

위 원 장 : 늘 잘 살피고 있습니다.

최 희 : 자립도 1명 했네요.

미 : 네, 박 은(여) 아동이 7월 23일부로 자립을 하였습니다.

미 : LH를 통해 월세 없이 보증금 9천5백만원 남 동 빌라를 임대하
었는데 고압케도 500만원은 은이가 다니고 있는 하 샘 교회
에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 금12,000,000원과
디딤씨앗 2천여만원을 받았으며 자립을 하면 기초생활수급비 70
여만원과 자립수당 50만원을 5년간 매월 받게 됩니다.
현재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며 아르바이트도 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하
여 저축을 해 놓고 퇴직한 후 올해 대학 작업치료과에
진학을 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 : 아기에부터 키웠는데 많이 섭섭하시겠어요.

미 : 섭섭합니다. 그래도 바르게 자라 자립을 하니 뿌듯합니다.

미 : 자퇴 아동이 3명이나 되네요.

미 : 네,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크게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미 : 스스로 많은 생각 끝에 아마 내린 결정일 겁니다.

아이들 의견 존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 : 8월 14일에 시설평가도 받으셨네요.

준비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미 : 2025년 8월 14일에 3년마다 실시하는 2025년 시설평가를 미흡하
나마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가위원으로는 부산시청 주무관님, 고신대학교 교수님, 파랑새
아이들의 집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동수가 30인 이하 시설이라 직원이 많지 않아 평가 준비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렸고 참고해 주셨습니다.

마치고 시설 라운딩을 하시며 아이들의 생활환경도 살펴 보셨습
니다. 평가 결과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므로 결과도 겸허히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결과를 내년 초쯤에 발표됩니다.

고생 많으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원 장 : 다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8월말 경 온수저장탱크가 뜨거운 물이
늘 담겨 있다 보니 노후되어 구멍이 나서 약간의 수리는 했습니
다만 교체할 상황이 발생하여 견적을 받아보니 예산이 팔백만원
정도 든다고 하여 공사비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고려제강 내 (재)고려문화재단 사무국장님께서 9월 8일에 첫방
문을 해 주시어 오랜 대화 끝에 후원금 일천만원을 후원하겠으
니 아이들이 춥지 않게 전기온수탱크도 교체하고 오래된 냉장고
도 교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문과 자료를 보내 드리고 9월 16,17일 양일간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사후 비가 오더니 갑자기 추워져서 공사를
그 때 안 했으면 아이들이 냉수로 목욕을 할 뻔 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재)고려문화재단에서 연락이 와서 결제가 났으니
곧 온수탱크 교체 경비와 냉장고 구입비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 추석에 큰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박 회 :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아시고 다녀가셨을까요?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최 회 : 정말 잘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재)고려문화재단에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위 원 장 : 제가 성에원에 근무한지도 꽤 오래 되었는데 뭔가 절실할 때 꼭
후원자님께서 다녀가셨던 것 같습니다.

성에원 후원금으로 공사할 예정이었지만 후원을 받게 되면 성에
원 후원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입니다.

박 회 : 직원들 근황은 어떤가요?

위 원 장 : 직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슬 생활지도원은 아내가 6월 말에 출산하여 8월 한달동안
출산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요즘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가
잘 되어 있어 직원들의 근무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박 회 : 출산율이 저조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좋은 제도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 최 회 : 남자 직원분들이 육아휴직도 가고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 위 원 장 : 근로자들을 위한 좋은 제도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 박 회 : 네, 그러네요.
- 박 회 : 민 학생은 개학 했을텐데 학교생활 어떤가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도 받으셨나요?
- 이 민 : 네, 등록금 받을 정도는 학점이 나와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
금 받았습니다.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 하다 보니 학점을 잘
받지는 못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 회 : 학교와 알바를 병행하는게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 응원할게요.
- 이 민 :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박 회 : 성애원 생활은 어떤가요?
- 이 민 : 네, 편하고 좋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모두 잘 해 주십
니다. 대학교 졸업 후 자립할 생각입니다.
- 최 회 : 자립도 하고 싶을텐데 성애원 생활이 편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 조 미 : 민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입니다.
바르게 잘 자라주고 있어 늘 고맙기도 하구요. 화이팅!
- 박 회 : 뽀이는 2학기 등록을 하였나요?
- 위 원 장 : 네, 결국 380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성애원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 디딤씨앗 통장을 해지하여 2학기 등록을 하였습니다.
2학기때는 열심히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믿어 보려고요
- 최 회 : 믿어 주십시오. 대학간 아이들 중 휴학, 자퇴가 발생하네요.
영아시설이던 성애원인 이젠 초,중,고가 10명, 20살 이후가 17
명이나 되어 버렸네요. 처음 키우시는 큰 아이들이라 신경이 많
이 쓰이시겠습니다. 한명 키우기도 힘들텐데요.
- 위 원 장 :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해 주고 있어 보람을 더 많이 느낍니다.
- 최 회 : 천직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후원처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 박 회 : 저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하기를 동의
합니다.
- 위원일동 : 재청합니다.

위 원 장 : 위원님들의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폐회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2025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제4차 시설운영위원회의 때 뵙겠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고 다가올 추석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24일